

캄보디아에서의 달러 사용의 득과 실

강 기 원 / 서원대학교 교수

요 약

캄보디아는 1992년 달러화를 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12년이 지난 2004년 말 현재 금액으로 볼 때 총통화 중 달러화가 점하는 비중은 약 70%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는 상당부분 통화발행 권리를 상실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잃어버린 가치는 2004년 말 현재 682백만불에 이른다.

한편 매년 경제성장에 따른 통화증가분 발행 권리의 상실 및 외화를 보유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상실 등으로 61백만불 상당의 가치도 추가적으로 잃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상당부분 통화발행권 상실로 인하여 화폐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대외무역정책을 구사할 수 없는 등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고 나아가 소득분배의 불균형 심화까지도 참아야 하는 반면 달러화를 통용시킴으로써 물가 안정과 통화위기 시에 국가부도 위험의 감소와 같은 정도의 혜

택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달러 사용에 따른 손실이 혜택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달러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달러화 통용을 법으로 금하는 정책과 달러화의 통용은 허용하되 법으로 달러 사용 편의보다 달러 사용에 수반되는 비용을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84% 이상이 리알화를 사용하고 있는 캄보디아 현실을 감안하면 법으로 달러 통용을 금해도 소수의 수입업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통화로 달러화를 쓰지 못한다는 사실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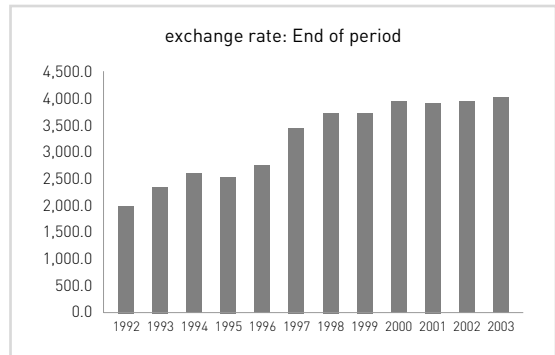
I. 서론

1960년대 아시아 국가로서는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캄보디아는 전쟁과 내전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30여년간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궁핍한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1998년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정치적 안정을 되찾은지 만 6년이 지난 현재 캄보디아인들은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글은 캄보디아 정부가 화폐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대외무역정책 등을 실시하면서 경제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현재 통화로 자국통화인 리알화와 함께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리알화 전용의 경제로 복귀하는 것이 캄보디아에 유리할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안고서도 달러화를 통화로 사용하여 경제 안정을 기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캄보디아 정부가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쓰여졌다. 이를 위해서 달러를 통화로 사용함으로써 캄보디아가 치러야 하는 비용으로 통화발행권 상실, 화폐정책 상실, 대외경제정책 상실과 소득분배의 왜곡 심화를 논했고 이익으로는 물가 안정과 통화위기때 국가부도 위험의 감소 등을 검토했다. 그리고 달러 사용을 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이 글은 통화에서 달러화의 사용비중, 달러를 사

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 탈 달러화 경제를 위한 조치,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었다.¹⁾

II. 달러화의 사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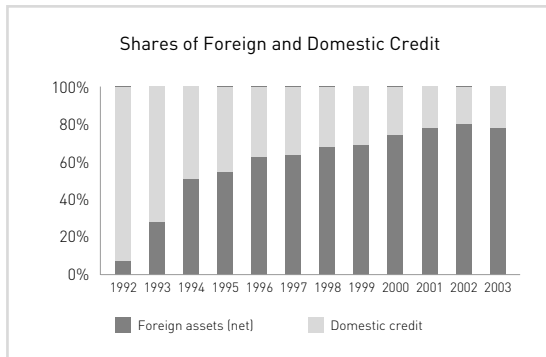


1991년 공산체제 붕괴 후 캄보디아 경제가 자유경제체제로 편입되던 1993년의 캄보디아 GDP는 2,891.8백만불이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2004년 캄보디아의 명목 GDP는 1993년보다 51%가 증가한 4,390.6백만불을 기록했다.²⁾ 그러나 이를 캄보디아 통화 리알화로 평가하면 캄보디아 경제는 지난 10년 사이 3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화폐단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까닭은 리알화의 가치가 1달러당 1992년 말 2000리알에서 1997년에는 3500리알, 그후 2004년에는 4000리알로 절반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³⁾ 지난 10년 사이 캄보디아 통화가

1) 이 글은 필자가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2월 20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파견한 캄보디아 총리 경제자문관으로 캄보디아 총리실에서 근무할 때 쓰여졌다. 총리실의 H.E. Sok An 부총리, H.E. Yim Molla 장관 이하 총리실 직원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특히 이 글을 쓸 때 많은 조언을 해주 타나 차관에 감사한다.

2)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GDP성장률이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2004년 GDP값을 추정했다. 자료는 ADB의 Key Indicators 2004 (www.adb.org/statistics) May 2004 참조.

그 가치의 절반을 상실하지 않았으면 캄보디아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에서 베트남 수준을 추월하고 있을 것이다.⁴⁾ 그러나 이는 90년도 중반까지 일부 지역에서 내전이 지속하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은 것을 감안하면 그 기간동안 캄보디아 경제는 놀랍게도 상당한 안정을 유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캄보디아 경제가 그런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나? 이는 주로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과 국제기구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지만 통화로 달러화가 리알화와 함께 통용된 사실에서도 그 상당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달러화가 사용된 것은 1988년부터 정부가 국내에서 국제기관 직원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달러화 사용을 묵인하는 것에서

부터 비롯되었다.⁵⁾ 특히 유엔의 지원하에 선거를 치른 후인 1993년부터는 많은 외국인이 캄보디아를 방문하면서 캄보디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달러화의 규모가 급속히 늘었다. 그리고 캄보디아인들도 달러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992년에는 순외화자산과 국내신용의 합계에서 순외화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993년에는 25%, 94년에는 50%로 증가했고 2000년에는 74.1%, 2003년에는 77%까지 늘었다.⁶⁾ 현재에는 통화 사용 금액으로만 보면 외국화폐인 달러가 캄보디아의 통화이고 정작 캄보디아 통화인 리알화는 지방과 도시의 중하층 계급에서 쓰이는 보조화폐로 전락한 셈이다.

그럼 캄보디아 경제에서 얼마나 달러화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가? 즉 총통화(M2)에서 외국통화 비중은 얼마가 되는가? 이 비중이 순외화자산과 국내신용의 합계에서 순외화자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같다고 가정하면 캄보디아에서 달러화가 얼마나 통용되고 있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다.⁷⁾ 1992년에는 캄보디아 총통화 124백만불 중에 외국통화는 10백만불에 불과했다. 이것이 2003년에는 총통화의 77%를 점하는 642백만불까지 늘어났다.⁸⁾

3) 캄보디아 통화 리알화의 평가는 1986년 1달러당 19.6리알에서 2003년에는 무려 3,973.3리알로 폭락했다. 자료의 제약으로 기간 평균값을 취했다. ADB, Key Indicator 2004, www.adb.org/statistics 참조.

4) 2003년 1인당 국민소득이 캄보디아는 314불, 베트남은 478불이었다. ADB, Key Indicator 2004, www.adb.org/statistics 참조.

5) 캄보디아 총리실의 OBESSE에 근무하는 타나 차관의 설명 참조.

6) 캄보디아인들은 화폐가치의 저장을 금에서 사용과 보관이 편리하고 이자가 붙는 달러표시 재산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7) 통상 자료의 부족으로 보통 총통화 중에 외화자산의 예금 비율을 총통화 중에 외국통화의 유통비율(이 비율로 계산하면 2002년 69.3%가 된다)로 잡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외국통화가 계산에서 누락되는 결점이 있다. 여기서는 순외화자산과 국내신용의 합계에서 순외화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총통화 중 외국통화의 비중(이 비율로 계산하면 2002년 79.9%가 총통화 중 외국통화의 비중으로 된다)으로 간주했다. Dollarization of Cambodia, http://www.moc.gov.kh/integrated_framework/component_report_b3.htm 참조.

8) 순외화자산과 국내신용의 합계에서 순외화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통화에서 달러화가 사용되는 비중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한 값이다. 2004년에는 886백만 불의 총통화 중에 달러화가 681백만 불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총통화(M2)는 1997년부터 2003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회귀분석)하였고 외화사용비중은 2003년 순외화자산과 국내신용의 비중이 2004년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발생한다. 이렇게 총통화 중에 외국통화인 달러화의 사용비중이 높아도 괜찮은가? 캄보디아 정부는 국내에서 외국통화가 지배통화가 되고 있음에도 이런 현상을 그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아니면 캄보디아 국내에서 달러화 사용을 억제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외화의 국내 통용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할 수만 있으면 쉽게 얻을 수 있다.

Ⅲ. 달러 사용의 비용과 이익⁹⁾

1. 비용

1) 통화발행권 상실

가. 통화발행권의 상실 1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통화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자국의 통화발행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곧 자국에서 외국통화를 사용하는 정도만큼 자국의 독립적인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집행 및 외환과 환율제도를 통한 대외 경제정책의 집행을 제약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외국통화의 통용을 허용함으로써 한 국가가 경제·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잃는 정도에 비례하여 금액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통화발행권 일부의 포기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은 외국통화를 사용함에 따라 자국통화를 발행하지 못하는 총액에서 그 총액에 해당하는 통화를 제조하는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액이다. 가령 종이와 인쇄 비용으로 1리알을 들여 1000리알짜리 화폐를 한 장 발행했다면 이 경우 1000리알짜리 화폐 한 장을 발행하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999리알이 된다.¹⁰⁾

통화발행권은 경제·사회적 주권을 갖는 모든 국가의 특권으로서 지폐를 발행하는 나라로 하여금 통화를 발행하는 규모에 비례하는 거대한 사회적 저축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대한 사회적 저축을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캄보디아는 현재 총통화 중 70% 이상 자국통화인 리알화 대신 외국통화를 (미국 달러화를 주축으로 일부 태국의 바트화와 베트남의 동화도 통용됨) 사용하고 있다. 어리석게도 캄보디아는 자국에서의 거대한 사회적 자본 축적의 기회를 상실하고 자기 나라보다 잘 사는 미국(일부 태국 그리고 베트남)의 자본 축적을 돕고 있다.

그럼 통화발행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축적하지 못한 저축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2004년 말 캄보디아의 총통화는 886.3백만불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총통화에서 외국통화 비중이 2003년과 같

9) Jayant Menon (1998) 참조.

10) 여기서는 통화발행에 따른 비용은 없다고 가정했다. 통화발행 비용은 통상 통화 액면가에 0.1%도 안 된다고 한다. Dollarization <http://wihummel.cnchost.com/dollarization.html> 참조.

11) 2003년 말을 기준으로 한 순외국자산이 순외국자산과 국내신용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총통화에서 외화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정했고 그 비율이 2004년 말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가정했다.

이 76.9%라고 가정하면¹²⁾ 2004년 말 현재 통화발행 권리를 상실하여 축적하지 못하는 국내저축의 총액은 681.8백만불에 이른다.

나. 통화발행권의 상실 2

통화발행권 포기에는 또다른 손실이 따른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에 따라 소요되는 통화규모도 늘어나 그 늘어난 부분만큼 인플레이션 없이 통화발행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외국통화가 상당부분 통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규 통화 발행에 제약이 따른다. 가령 캄보디아 경제가 연 6%의 성장을 한다면¹²⁾ 통화량도 그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다.¹³⁾

캄보디아에서 외국통화가 통용되지 않는다면 캄보디아 정부가 경제성장에 따라 2005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통화량은 53.2백만불(이는 2004년 추정된 총통화량 886.3백만불의 6%)이 된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경우 총통화 중 자국통화가 점하는 비중이 불과 23%이므로¹⁴⁾ 캄보디아 정부는 리알화를 12.2백만불 정도만 발행할 수 있고 41백만불의 통화발행권리는 자동적으로 외국 정부의 몫으로 넘어간다.

다. 통화발행권의 상실 3

통화발행권 포기에 따른 손실에는 잃어버리는 이

자수익을 빼놓을 수 없다. 가령 캄보디아에서 달러화가 통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통용되는 외화는 중앙은행에 집결될 것이다. 중앙은행은 이를 미국의 재무성증권을 산다거나 기타 이자가 붙는 채권 형태로 보유하거나 저렴한 이율로 빌려줄 수도 있다. 현재 캄보디아의 이자율은 연 15~18%(시중에는 월 5%에 이른다)에 달한다.¹⁵⁾ 그러므로 최소 년 3%의 이율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통화발행권 포기에 따른 기회비용의 이자 손실액은 2004년에는 20.4백만불(=681.8백만불*0.03) 이상이 된다.

라. 통화발행권 상실 종합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2004년 말 현재 통용되는 외국통화 때문에 잃어버리는 국내저축의 총액이 681.8백만불, 통화증가율이 6%라고 가정했을 때 2005년에 추가로 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사용함으로써 발행하지 못하는 통화의 규모가 41백만불, 그리고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있을 외화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수입이 3%의 이자율을 가정했을 때 20.4백만불이 된다. 그러므로 2004년 말 현재 국내저축 상실액이 681.8백만불, 이에 더하여 매년마다 계속 61.4백만불(2004년 기준)씩이 캄보디아 정부의 통화발행권 상실에 따른 손실이다.¹⁶⁾

12) GDP의 증가율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5%에서 7% 수준에 이르고 있다.

13)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통화의 회전속도가 떨어지고 통화량은 경제성장률보다는 적게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통화의 회전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통화량도 경제성장률과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14) 2005년 리알화가 총통화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2003년의 비중과 같다고 가정했다.

15) 캄보디아 총리실 타나 차관과 프놈펜 소재 ABA은행의 조재완 행장에 문의.

16)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1999년 GDP의 4%에 해당하는 150억달러의 화폐발행권의 손실과 매년 GDP의 0.3%에 달하는 10억달러 상당의 화폐발행 기회를 상실했다. Andrew Berg, Eduardo Borensztein, "Full Dollarization, the pros and cons," seigniorage, <http://www.imf.org/external/pubs/ft/issues/issues24/index.htm> 참조.

2) 화폐정책 수단의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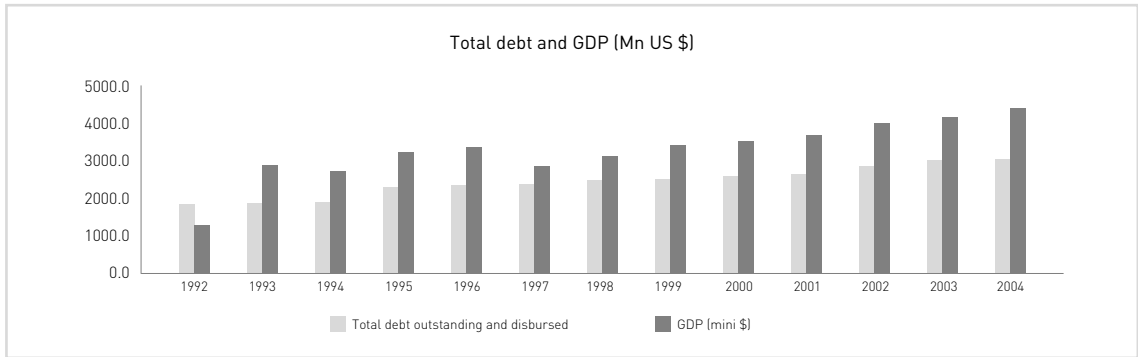
캄보디아에서 달러화가 통용됨으로써 캄보디아 정부는 화폐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통화 공급 조절을 통해 화폐유통량을 통제하는 일이다. 이런 통제를 통해 중앙은행은 물가와 이자율의 안정 및 경제발전을 도모한다. 그런데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롭고 외화가 그대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화폐공급의 증감은 외화의 유출입과 일치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리알화 공급의 통제만으로 통화의 유통량을 조절할 수 없다.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못해 캄보디아에서는 채권시장에서 공채를 사고 파는 공개시장조작은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통화가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되거나 유통되지 못함으로써 은행의 법정지불준비율을 조정하는 통화조절 수단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통화관리를 위한 각종 화폐정책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캄보디아는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달러화 유통과 상품 수출입의 자유화를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캄보디아에서는 통화관리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기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외화가 통화로 유통되고 있는 경제에서는 외화의 유출은 바로 통화의 감소로 디스플레이션을 야기시키고 외화의 유입은 통화의 증가로 인플레이

이션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는 외국으로부터 물품 수입이 억제되어 있는 나라의 이야기다. 국내 산업화의 정도가 낮아 상품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상품의 수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로 외화가 유입되면 바로 수입이 늘어나 물자공급이 늘면서 물가가 안정되고 외화는 유출된다. 그래서 물가 안정 속에 캄보디아 경제의 외형은 커진다. (경제성장) 한편 외화유입이 줄어들면 바로 수입이 줄어들어 물자공급이 줄어든다. 외화유입 감소로 발생하는 통화 가치의 상승은 상품의 수입 감소로 상품가치 상승과 상쇄된다. 그래서 이때에도 물가는 안정되지만 캄보디아 경제의 외형은 줄어든다. (경제수축) 국내에서 외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조절을 할 수도, 할 필요도 없겠지만 캄보디아 국민이 치러야 하는 희생은 엄청나다. 물가 안정을 대가로 국내 산업의 육성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경제의 성장과 수축이 도입되는 외자의 규모에 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경제가 성장하면 외채도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된다.¹⁷⁾

이는 아래 그래프에서도 확인된다. 1993년 이래 GDP가 2891.8백만불일 때 외채규모는 1820.5백만불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3년 GDP가 44.5% 증가한 4179.2백만불일 때 외채규모는 63.6% 증가한 2979.2백만불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성장해도 내실있는 성장이 되지 못해 실업과 빈곤문제를

17) 1993년과 1997년의 경우만 제외하고 캄보디아의 경상수지는 계속 적자 상태에 있었다. 1998년과 1999년에는 상당한 규모의 직접투자로 외화가 도입되었으나 경상수지 부족분을 채우기에는 부족했다. 외채규모가 계속 늘면서 캄보디아 경제는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외채규모가 늘면서 생산능력도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캄보디아는 화폐금융정책을 구사할 수 없음으로써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거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3) 대외경제정책 수단의 상실

실제로 달러화와 리알화의 환율이 1달러에 3000 리알인데도 불구하고 현실 환율을 1달러에 4000리알로 유지함으로써 수출을 돕고 수입을 억제하는 식의 환율정책을 캄보디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수입품의 가격이 달러 표시로 수입되어 달러 표시로 팔리고 수출품도 달러 표기의 원료로 제조되어 달러 표기로 수출되는 현실에서는 달러와 리알화 간의 환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달러화가 그대로 캄보디아에서 통용되는데 무엇 때문에 달러화와 리알화 간의 환율을 따질 것인가? 환율이 있다면 달러 대 달러의 1대 1 환율이 있을 뿐이다. 그럼 달러화와 리알화 간의 환율은 무엇인가? 이 비율은 리알화가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환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외화의 통용 비중이 총통화에서 70% 이상되는 캄보디아에서는 달러화와 리알화간의 비율은 통상 대외적인 환율로서의 의미를 대부분 상실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1997년 아시아 외환시장 위기때 캄보디아는 달러를 쓰기 때문에 통화위기를 겪지 않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외환시장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외환시장으로서의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한 캄보디아의 현실에서는 너무나 의미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1997년 아시아 외환시장의 위기는 환율에 대한 투기자금의 공격이었는데 환율자체가 없는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투기자금이 공격할 대상조차 없었다.

환율제도는 한 나라 경제의 대외 창구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조정한다. 그러나 달러를 통용함으로써 환율 자체가 없는 캄보디아에서는 모든 대내외적 충격은 바로 경제 전체의 충격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충격으로 임금, 이자, 이윤 등 요소소득 간의 균형이 깨어지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오랜 기간 동안 경제는 실업을 겪어야 하는 등 안정을 잃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환율이란 충격완화장치가 있었다면 겪지 않거나 겪더라도 피해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캄보디아 경제는 피할 수 없다.

4) 소득분배의 왜곡 심화

달러가 총통화의 70% 이상 통화로 통용되는 캄보디아에서는 달러로 보수를 받는 사람과 리알화로 보수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 소득분배의 왜곡이 크게 발생한다. 캄보디아 인구 중 소수만이 달러로 보수를 받는 상층의 소득계층을 이루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리알화로 보수를 받는 중하층의 소득계층을 이루고 있다.¹⁸⁾

이런 상황에서 리알화의 환율이 가령 1\$당 4000리알에서 5000리알로 떨어졌다고 하자. 이때 리알화로 소득분배를 평가하면 리알화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의 보수는 변함 없고 달러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의 보수는 올라간다. 한편 달러로 평가하면 달러로 수입을 올리는 사람의 보수는 변함없고 리알화로 수입을 올리는 사람의 소득은 떨어진다.

한편 캄보디아는 현재 수출입거래와 관광수입 그리고 외국인투자와 차관사업 등 대외거래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런 대외거래에서는 통화로 주로 달러화를 쓰기 때문에 달러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은 경제발전에서 혜택을 받기 쉬운 위치에 있는 반면 리알화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은 경제발전의 혜택에서 다소 떨어진 위치에 머물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이 대외거래에 의존하고 달러와 리알화가 함

께 통화로 사용되는 경제에서의 소득분배는 언제나 달러를 쓰고 달러로 보수를 받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달러의 사용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더욱 높인다.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 또한 적다고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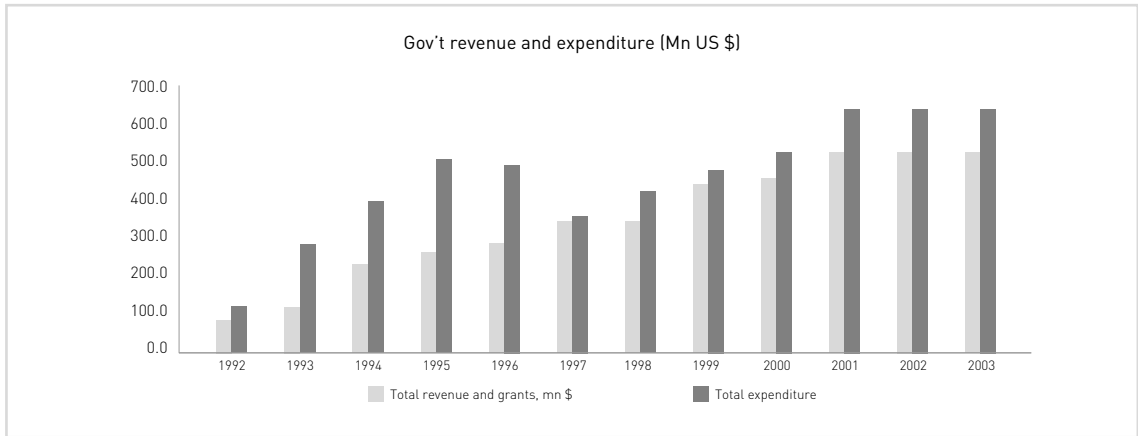
2. 이익

1) 물가 안정

지난 10여년 동안 캄보디아 정부의 재정에는 매년 100백만불 이상 적자를 보이고 있고¹⁹⁾ 이 적자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가령 캄보디아에서 달러가 통용되지 않는다면 캄보디아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어렵게 세금을 더 걷거나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늘리는 대신 손쉽게 통화를 발행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국가에서는 언제나 통화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발의 위험이 높다. 그렇지만 현재 달러를 통화로 쓰고 있는 캄보디아에서는 정부가 상당부분 통화발행권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통화증발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 위험은 낮다. 한편 달러화의 통용과 함께 수입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어 물가 안정도 확립되어 있다. 달러를 통화로 사용함으로써 또 국내 시장을 외국 기업들의 상품시장으로 내줌으로써 치르는 대가가 작지 않지만 물가 안정에서 얻는 경제·사회적 안정의 혜택도 크다.

18) 캄보디아 총인구에서 생존선 이하의 극빈자 비중은 1999년 조사에 의하면 36%라고 한다. Statistical Yearbook 2003, pp. 184,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Ministry of Planning, Kingdom of Cambodia 참조.

19) 1992년부터 2003년까지 12년간 평균 115백만불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달러화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때는 캄보디아는 이를 피할 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 처해 급히 통화를 발행해야만 할 경우에도 캄보디아 정부는 통화발행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2) 국가 부도 위험의 감소

캄보디아에서는 통화 중 70% 이상 달러화가 통용되기 때문에 달러화와 리알화와의 환율은 리알화가 통화로 통용되는 정도만큼의 의미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1997년 아시아 각국이 통화위기를 맞을 때에도 리알화와 달러화 간의 환율 변동이 있긴 했지만 캄보디아 경제는 인도네시아나 태국, 한국에서처럼 격변을 겪지 않고 위기를 넘겼다.²⁰⁾

그럼 이런 안정의 근거는 어디서 온 것인가? 캄보

디아에서 달러를 통화로 사용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리알화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인가? 대외지불보증금이 부족했을 때 시중에 있는 달러화가 대외지불보증금의 역할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화로 통용되는 달러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만 부분적으로 대외지불보증금으로서 역할을 할 뿐이다. 이때에는 분명 달러를 통화로 사용함으로써 국가부도 발발의 위험을 줄이는 경제·사회적 혜택이 발생한다.

3) 종합

달러를 통화로 사용함으로써 캄보디아가 통화발행을 하지 못하는 손실은 구체적으로 2004년 말 현재 도합 681.8백만불에 매년 61.4백만불씩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화폐정책, 재정정책과 무역정책

20) 1996년부터 1997년 1년 사이 리알화의 평가는 27.2% 절하되었고 그 영향으로 달러표시 명목 GDP는 13.5% 부(負)의 성장을 기록했다.

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인플레이션 위험과 통화 위기때 국가부도의 위험을 줄이는 혜택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달러화를 통화로 통용함으로써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문제까지 감안하면 달러를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캄보디아 경제를 위해서는 더욱 유리한 것으로 사료된다.²¹⁾

IV. 달러 유통 금지를 위한 방안

캄보디아에서 통화로 달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혜택보다 크다면 어떻게 달러의 통화 사용을 금할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달러 유통을 금하는 내용의 경제조치를 법으로 공포하여 달러 유통을 금할 수 있다. 이 경제조치는 현재 캄보디아 주민의 84% 이상이 리알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집행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단시일에 경제조치가 끝나므로 이에 따른 경제적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때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급격히 외화가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재 달러화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는 달러화가 단지 통화로 통용되지 못할 뿐이며 리알화에서 다

시 달러화로의 재교환도 언제나 보장되는 상황에서 는 대규모의 달러화 해외 도피가 일어날 이유가 없다. 만약 달러화의 해외 도피가 일어난다면 리알화로 의 교환과정에서 정체가 들어나는 것을 꺼리는 대규모 불법 자금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불법이든 아니든 업무 무대가 캄보디아라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조치의 집행에 따른 제반 업무 가령 화폐의 제조,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달러화를 리알화로 교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부대적인 걱정으로 캄보디아 담당 공무원들의 세심한 주의가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들이다.

둘째는 달러화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달러화 사용에 따른 손실의 정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가령 달러화를 통용할 때 시중에서는 그 환율을 1달러당 3600리알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표하고 외화 보유자가 거리의 통화교환소에서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3800리알, 은행에서 교환할 때에는 4000리알로 교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또 세금이나 공공요금,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필히 리알화 사용을 의무화하는 수단도 강구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은 정책수행에 충격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효과를 얻는데에는 다소간의 기간이 소요된다. 물론 이런 정책집행으로도 달러화의 사용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다.

21) 2004년 캄보디아에 대한 IMF의 평가서에서도 통화로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캄보디아로서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IMF Concludes 2004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Cambodia, Executive Board Assessment, Public Information Notice(PIN) No. 04/108 September 27, 2004 참조.

V. 결론

1970년부터 30여년간 정치적 안정을 잃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 실험장이 되었던 캄보디아에서는 국민들의 가치저장 수단이 1980년대에 금에서 1990년대에는 달러화로 바뀌었다. 그리고 90년대 이래 달러화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 2004년 말에는 총 통화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달러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 안정을 잃었던 캄보디아에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었다. 그러나 통화 안정의 대가로 캄보디아는 경제적 독립을 희생하고 통화발행권 행사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통화로 달러화를 리알화와 함께 사용하는 대가가 그로 인한 혜택을 상회하는 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정치적 안정은 경제개발의 기초가 된다. 2003년 선거를 치렀고 현재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 새 출발을 한 캄보디아에는 정치세력간의 화해 시대가 열렸고 사회적 안정 속에서 경제개발을 할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이런 기회를 살려 캄보디아 정부가 경제개발을 하려면 필히 경제정책 수단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가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통화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을 창조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등 각종 화폐금융정책과 환율을 조절하여 수출 장려와 동시에 수입 억제를 유도하는 대외경제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거대한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투자사업을 수행할 재

정정책도 필히 구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제정책은 달러를 통화 중에 70% 이상 사용하는 경제에서는 채택할 수 없는 경제정책 수단들이다. 여기서 캄보디아 정부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즉 경제정책적 수단을 상실하더라도 경제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안정은 확보했으므로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확보하여 외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리알화만을 사용하는 경제로 복귀하여 상기의 모든 경제정책적 수단을 확보할 것인가? 이 선택은 캄보디아 정부가 앞으로 국가 운영에 어떤 각오를 갖고 있는가와 향후 정국에 대해 어떤 상황판단을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좋은 삶든 캄보디아 국민에게 돌아간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달러를 통화로 사용하는 비용이 그 혜택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IMF 조사단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1998년까지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지 못했던 캄보디아 정부가 앞으로도 정치적 안정에 의문을 갖는다면 당분간 달러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향후 정치적 안정을 기할 자신이 있고 고용확대와 경제개발을 위해 경제정책적 수단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신속히 달러를 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폐공사 설립과 같이 화폐발행을 위한 각종 준비는 물론 금융통화위원회를 설치하여 화폐량과 금융기관 관리를 위한 체제를 두루 갖추고 집행체제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Andrew Berg, Eduardo Borensztein (2000) "Full Dollarization The Pros and Cons," 200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www.imf.org/external/pubs/ft/issues/issues2i/index.htm>>

Central Information Agency, "Cambodia," The World Factbook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geos/cb.html>>

Definition of Seigniorage, referred to <<http://wfhummel.cnchost.com/seigniorage.html>>

Definition of Dollarization, referred to <<http://wfhummel.cnchost.com/dollarization.html>>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4), "IMF Concludes 2004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Cambodia," <<http://www.imf.org/external/np/sec/pn/2004/pn04108.htm>>

Ministry of Commerce (2005), "Dollarization in Cambodia"
<http://www.moc.gov.kh/intergrated_framework/component_report_b3.htm>

Menon, Jayant (1998) "Dollarisation in Cambodia," Cambodia Development Review 1998/2(June)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2004), Statistical Year Book 2003, Ministry of Planning, Cambodia

Samdech Hun Sen (2004), The Rectangular Strategy: Economic Policy Agenda of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Addressed by Samdech HUNSEN, Prime Minister of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on <<Rectangular Strategy>>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 First Cabinet Meeting of The Third Legislature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Office of the Council of Ministers, Phnom Penh, 16 July 2004.

Sophal Ear (1996), "dollarization, Monetary Independence and Inflation," The CACP Newsletter, Issues No. 15 & 16, June-July 1996,
<<http://www.csua.berkeley.edu/~sophal/cicp1a.htm>>

Zeljko Bogetic (1999), "Official or full dollarization: Current Experiences and Issu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ogetic@imf.org)
<<http://www.geocities.com/Eureka/Concourse/8751/edisi04/bogdllr.htm>>